<특별활동\_기말과제>

2013-12815 이동주

고학년으로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비대면 수업에서 오는 이점이 클 것이라 기대했다. 강의실 곳곳을 넘나드는 동선에 오랜 동안 지쳐 있기도 했고, 성실함이 부족해 출결 점수에서 감점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집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화상 수업은 희소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기를 진행하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수강' 또한 교수자와 피교수자 내지는 피교수자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비대면 수업은 편의성을 제공한만큼 집중력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동료 효과'를 배제한 날것의 수업 참여 경험은 스스로의 의지와 집중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주 마주하게 했다.

모두가 처음 겪었던, 혼란의 시기를 지나 대내 경기 수업은 각 조별로 유닛을 나누어 조교의 진행 하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형태로 안정되었다. 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의 실기 과목으로써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수업보다 효율적인 형태의 실기 수업은 생각해낼 수 없었다. 토픽과 과제를 교수자가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현재 원격강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할 때 스무 명 남짓의 규모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느껴진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실기 수업은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기에 갖는 필연적인 아쉬움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번 1학기 대내 경기 수업은 학생들이 한정된 수업시간 내에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교수자가 목표하는 해당 수업 시간 내의 주제와 과제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